

#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전기정보공학부 김나림

## 1. 활동 내역

교류 기관: 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TUM, 뮌헨 공과 대학교)

교류 기간: 2024.10.01. - 2025.03.31.

## 2. 지원 동기

고등학교 때부터 독일 교환학생을 꿈꿨습니다. 헤르만 헤세와 하이젠베르크의 책을 좋아했고, 그들의 나라에서 그 정서를 느껴 보고 싶었습니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가 양자 역학에 대해 토론하던 뮌헨대학교(LMU) 캠퍼스에서 공부해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뮌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뮌헨대학교에는 공과대학이 없었고, 대신 뮌헨대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뮌헨공과대학교(TUM)가 있었습니다. TUM은 세계 순위에서 거의 항상 독일 1등을 자랑하는 공과대학으로, 특히 전기 및 컴퓨터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역사 깊은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1지망으로 TUM을 선택했습니다.

더불어 고려했던 점은 1)치안, 2)생활 물가, 3)주변국 여행입니다. 우선 뮌헨은 독일에서 가장 생활 수준이 높은 도시로, 거리가 매우 청결하며 범죄율도 아주 낮습니다. 여자 혼자 생활하기에도 충분히 안전한 도시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가 역시 외식은 비싸지만 마트에서 장을 보는 비용은 저렴하다고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한국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만큼 틈틈이 기차로 주변국을 여행하기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3. 입국 전 준비사항

챙겨야 할 서류가 많고 기한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메일을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 1) 비자 발급

주한독일대사관을 선착순으로 예약하고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사관 방문 시점에 독일 대학의 입학 허가서가 있어야 하니 지나치게 빨리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24-2 기준, 6월 26일에 메일로 입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선착순 예약이 쉽지 않으며 자세한 방법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니, 인터넷에서 최신 팁(예: 크롬 오토필 기능 사용 등)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수 서류 가운데 '슈페어콘토(재정 증명서)'와 보험 가입 서류가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 TUM은 한 달에 약 135유로에 달하는 TK 공보험을 요구하며, 사보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patrio라는 서비스에서 슈페어콘토와 TK 공보험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지원과 한국어 고객센터가 잘 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했습니다.

## 2) TUM application

OIA에서 합격 메일을 받고 나면 서울대에서 자체적으로 교환교에 지원자를 추천하는 Nomination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지원자는 직접 교환교에 나머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Application이라고 합니다. Nomination이 된 학생이라면 보통 Application에서 떨어지지는 않으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수 서류 가운데 Study plan, 즉 TUM에서 들을 과목들의 리스트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체 수강 예정 과목들 가운데 30%는 지원한 학과의 수업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파견 전 오리엔테이션

국제협력본부에서 진행한 행사로, 교환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사항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행사 후에 모든 자료를 메일로 보내 주시니 참석하지 못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 4) 국외수학허가신청

학교 홈페이지 학사행정 항목에서 수강예정 교과목과 서울대학교의 예상교과목을 찾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기입한 그대로 수강하지 못해도 추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 5) 기숙사

아시아에서 오는 교환학생들에게는 거의 기숙사가 배정된다고 합니다. 뮌헨은 시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배정하기 때문에 뮌헨의 다른 학교 학생들과 기숙사를 공유하며, 시내 곳곳에 기숙사가 흩어져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기숙사 요구 사항과 관련된 설문 메일을 제출하면 수락 선언서와 송금 영수증을 보내 달라는 메일이 오는데, 이 때 입금 기한이 7일밖에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기숙사 배정 정보와 안내 사항이 메일로 옵니다. 뮌헨은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어서 저는 9월 11일에 기숙사 주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6) 독일어

독일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학교에서 초급 독일어 1을 수강하고 갔습니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 영어가 잘 통하는 편이어서 독일어를 한 마디도 못해도 생활하는 데 일반적으로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독일을 정말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많지 않은 현지 시장이나 가게에서 메뉴판을 읽고 주문을 할 때, 광고판의 짧은 유머를 이해하고 피식 웃을 수 있을 때면 독일어를 배우길 정말 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읽을 수 없는

라벨이나 표지판을 볼 때마다 종종 번역기를 켜곤 했는데, 길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농담까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배웠다면 정말 재미있었겠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 4. 학내 생활

TUM의 수업 방식이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출석이 아예 없고 대체로 한 학기 성적을 기말고사만으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과제가 있더라도 성적을 한 등급(ex. A0 -> A+) 올리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수업 자료 및 녹화 영상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컴퓨터공학(Informatics)의 경우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실제 수강 인원보다 강의실에 출석하는 학생 수가 아주 적습니다.

또한 수강신청과 수강 취소가 거의 한 학기 내내 가능하고, 일부 수업(세미나 등)을 제외하면 정원 제한이 없습니다. 최대 수강 가능 학점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 7개의 과목을 수강하다가 기말고사는 3개 과목만 신청했습니다. 한 학기 내내 공부한 내용을 단 한 번의 기말고사로 판별하는데, 낙제 비율이 평균 약 30%, 과목마다 최대 50~60%에 달한다고 하니, 출석 점수가 없어도 평소 성실히 공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문화 자체는 크게 한국과 다르지는 않았습니니다. 세미나나 실험이 아니라 강의(lecture)와 실습(tutorial)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를 듣는다면 강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종종 학생들이 수업 중간에도 손을 들고 이해하지 못한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학부 수업은 대부분 독일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일어가 능숙하지 않다면 대학원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학원 수업이 내용은 깊고 선택지도 다양하며, TUM 학부 수업보다 난이도가 특별히 높지도 않다고 합니다.

TUM이 3월에 종강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국의 학기와 겹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2학기 대부분의 수업이 2월 20일 무렵, 혹은 그 전에 끝납니다. 공식 기말고사 신청 기간은 11월 18일부터이고, 기말고사 날짜는 이보다 빨리 발표되기도 합니다.

#### 5. 학외 생활

TUM 교환학생들은 독일 대학교 연합 ESN에서 주최하는 국제 학생 프로그램과 기숙사 서비스패킷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SN은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새로운 이벤트가 업데이트되니 선착순 신청에 성공하려면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패킷은 메일로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 리스트가 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저렴하고 구성이 알차며,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저는 ESN에서는 3박 4일간 베를린에서 독일 전역의 국제 학생들이 모이는 Spreebreak 행사, 쿠키 만들기 행사, 학기 초 캠퍼스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서비스패킷에서는 린다우/뉘른베르크 당일치기 여행, Parknachklamm 협곡 하이킹, 에르딩 양조장 투어, 할로윈 호박 깎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학생 튜터들이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새로운 친구들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학기 초에는 일주일 넘게 매일 조별로 진행되는 Party Animals, Culture Creatures 같은 ESN 행사들도 유명합니다. 다른 나라 교환학생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일정이 촘촘해서 정착 초기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그래도 인기가 많아서 선착순 신청이 빨리 끝나니, 관심이 있다면 되도록 메일이 오는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스포츠 활동을 좋아한다면 ZHS에서 운영하는 강좌도 매우 추천합니다. 뮌헨 소재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위한 수백개의 스포츠 강좌가 낮은 가격에 제공됩니다. 이것도 선착순 신청인데 인기가 많아서 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요가/축구/테니스 같은 강좌 외에도 수영/클라이밍/헬스장 등의 자유이용권도 있고, 등산/스키/스노보드 등은 일회성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는 1박 2일 등산 프로그램을 두 번 다녀왔는데, 뮌헨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깎아지르는 듯한 산을 하루 종일 올라 도착한 구름 위 평원과, 알프스 산맥 한 자락의 아늑한 오두막에서 독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카드 게임을 하며 보낸 하룻밤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ZHS는 ESN이나 서비스패킷 프로그램에 비해 교환학생보다 독일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기본 언어는 독일어이지만, 한국 학생이 참여한다면 영어로 다시 설명해주는 등 전반적으로 배려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독일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면 ZHS를 추천합니다.

교환 학생 동안 문화생활을 정말 원없이 즐겼습니다. 대부분의 공연에 학생 할인이 있고 도시마다 수준 높은 공연단이 있어, 한국에서보다 부담 없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 예술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발레 3번(뮌헨 바이에른 국립 발레단의 라 실피드, 지젤, 현대 발레 트리플 빌), 오페라 3번(빈의 마술피리, 프라하의 라 보엠, 피가로의 결혼), 오케스트라 2번(임윤찬 피아니스트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뮤지컬 1번(런던의 위키드)을 각 13~33유로에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티켓도 구하기 힘든 조성진과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공연을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어 무척 뜻깊었습니다. Staatsoper라는 앱에서 학생 인증을 하면 뮌헨에서 발레와 오페라 할인 티켓을 한 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빈 필하모닉이나 베를린 필하모닉의 인기 있는 공연은 빠르게 매진되니, 관심이 있다면 독일에 오기 전에 공연 일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뮌헨의 알트 피나코테크, 너이 피나코테크 미술관은 일요일에 1유로에 개방해서,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 일요일에 시간을 보내기 좋았습니다.

뮌헨 교환학생이라면 매주 주말마다 주변 유럽 국가들을 여행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요즘은 저가항공 티켓이 기차표보다 저렴해서 생각보다 유럽 한가운데에 있다는 메리트는 크지 않습니다. 뮌헨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체코, 이탈리아 북부 정도는 기차로 여행하기 편하지만, 루프트한자 외에는 비행기가 자주 다니지 않아 항공권은 비싼 편입니다. 저렴한 유럽 배낭여행이 교환학생의 주요 목적이라면, (수하물 추가금액이 없다는 가정 하에) 저가항공이 자주 다니는 런던이나 베를린을 추천합니다.

## 6. 마치며

5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한 학기 동안 평생 못 해 볼 소중한 경험을 한가득 할 수 있었지만, 귀국을 앞둔 시점이 되니 아쉬움도 조금은 남습니다. 그 수업을 끝까지 들어볼 걸, 그 프로그램을 신청할 걸, 여기에서 만난 친구들과 연락을 지속할 걸, 하는 다양한 생각들이 듭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시간이니, 교환학생 생활의 우선순위를 잘 계획해서 후회 없는 한 학기 보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